

제12회 한일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 성료

## 어항과 어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발전방안 제시

### 6월18일 세종호텔에서 한일 관계자 100여 명 참석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8일 세종호텔에서 제12회 한일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어항과 어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관 및 연구계, 업계 등 어항 어장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어업기반권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수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어장환경 악화, 어업경비 상승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어업기반시설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하므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깨끗한 바다환경의 조성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 수산자원의 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지속적 수산업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나카 준지(田中潤兒)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양국은 세계 우수한 어업국으로, 수산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 연안지역의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진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기반인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에 대해 양국간에 기술교류가 지극히 가치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하며, 현재 양국의 수산업과 어촌은 어장환경이나 자원상황의 악화로 인한 어업생산 및 어업자의 감소,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어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염려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여 어촌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어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어항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각에서 어촌·어항·어장 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해안 및 어항·어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수산·관광·상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권 명품 관광어항 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어항·어촌을 어업인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 국민, 나아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까지도 이용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개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김정봉 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측에서는 이승우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연구위원이 '어항과 어장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수산업의 가치 증진', 송영택 한국어촌어항협회 팀장이 '어항·어장 주변시설을 이용한 해양레포츠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으며, 일본측에서는 오카노 다카히로(岡野崇裕) (사)수산토목건설기술센터 주임연구원이 '어항박지를 이용한 종묘방류와 조방(粗放)적 중간육성에 의한 효과',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典敬) (재)어항어장어촌기술연구소 제1조사연구부장이 '수산기반정비사업의 사업평가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했다.

또한, 나가무라 마코토(中村誠)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정비과 해외수산토목전문관은 '어항스투드의 장기활용을 위하여'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했다.

이후 회의를 마치고 양국 대표단 일행은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강원도의 중심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수산도시 속초의 관문인 대포항을 시찰하였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한일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는 양국 협회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국제기술 교류회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양국의 어항·어장 기술 및 수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에서 다나카 준지 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과 수산청 하시모토 오사무(橋本牧) 어항어장정비부장을 비롯한 연구소, 관련업체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으며, 또한 회의 하루전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하시모토 부장이 배평암 전 한국어촌어항협회장에게 양국의 어항어장어촌 관계자 우호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의 일본 야마다슈지(山田修路) 수산청장관 감사장을 전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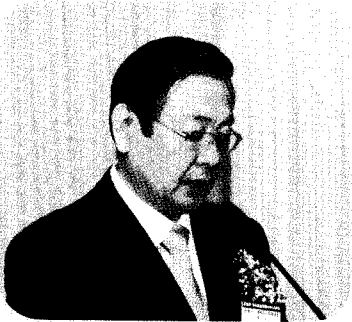


- 1 일본대표단 협회방문
- 2 배평암 전 회장 일본수산청장관 감사장 수여(좌측 두번째)
- 3 환영만찬 전경
- 4 본회의장 전경
- 5 오찬장 전경



- 6 한국대표단
- 7 일본대표단
- 8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대포항 현황설명을 듣고 있는 양국대표단
- 9 대포항 현장시찰
- 10 회의후 기념촬영

## 개 의 사



심 호 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 어항과 어장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

오늘 제12회 한·일 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가 이곳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오신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다나카 준지 회장님과 수산청 하시모토 오사무 어항어장정비부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국정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농림수산식품부 하영호 수산정책관님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산자원고갈, 어장환경악화, 어업경비상승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어업기반시설도 선진국 수준에서 볼때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깨끗한 바다환경의 조성을 통한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 수산자원의 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산업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는 이러한 차원에서 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기술교류회의는 양국 협회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어업기반권역의 종합적인 발전과 정보의 교류, 그리고 양국 관계자 간의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주제를 “어항과 어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계방안”으로 선정하고, 어항과 어장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의 결실을 위해 양국의 전문가들은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항 어장 등 어업기반권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양국 간의 기술교류를 오래도록 발전적으로 이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시켜 주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정봉 부장님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주제 발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인 사 말



다나카 준지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

### 수산업과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기를 확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 다나카입니다. 일본측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한일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를 서울 및 속초에서 개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본 회의를 준비하여 저희 일행을 따뜻하고 성대하게 환영해 주신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님

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바쁜신 와중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하영효 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협회는 1988년 어항대회로부터 교류가 시작되어, 이후 밀접한 관계와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을 통해 양국의 어업, 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술교류회의를 설치하여, 1997년 도쿄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금년에 벌써 12번째가 되었습니다. 이후 논문발표 및 현지조사를 통해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양국 협회의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해져 왔습니다.

양국은 세계 우수한 어업국으로, 수산업은 소비자에게 안전·안심한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 연안지역의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진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반인 어항·어장·어촌의 정비에 대해 양국간에 기술교류가 지극히 가치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국의 수산업과 어촌은 어장환경이나 자원상황의 악화로 인한 어업생산 및 어업자의 감소,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어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여 어촌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번 주제를 「어항과 어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방안」라고 정한 것은 정말로 시의 적절한 것이며, 중요한 수산업과 이것을 지지하는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이 되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류회의가 더욱 더 발전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활약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회의 및 현지시찰로 신세지게 될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치사

(하영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 대독)

### 아름다운 해안 및 어항·어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명품 관광어항 벨트를 조성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다나가 준지 회장님, 수산청 하시모토 오사 무 어항어장 정비부장님,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 어항·어장 관계자 여러분!

제12회 한·일 어항·어장 기술교류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동안 기술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수산기반 구축에 힘써 주

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어항·어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연계방안이라는 대 주제로 개최되는 한·일 어항·어장기술교류회의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인 유사성으로 수산업 여건이 비슷하고 주변 수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업인들의 삶의 근간이자 수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어촌·어항·어장에 관한 민간 단체 간의 교류는 양국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어항·어장관계자 여러분!

세계무역 환경은 수산보조금 등을 제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도아개발 아젠다(DDA) 출범, 무한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 등은 자국의 보호무역 시대에서 시장개방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는 위기이자 도전의 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양국간에 더욱 긴밀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수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갑시다.

한·일 양국 어항·어장관계자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는 수산업의 국내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단순한 어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어항개발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각에서 어촌·어항·어장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해안 및 어항·어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수산·관광·상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권 명품 관광어항 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어항·어촌을 어업인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 국민, 나아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까지도 이용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개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력과 위기를 뛰어 넘는 추진력을 결집하여 이번 회의가 한·일 양국간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